

2일 Market Index			
↑ 코스피	2343.12	↑ 코스닥	772.84
	(+41.56)		(+33.61)
↓ 금리 (연율)	3.979	↓ 환율 (원/달러)	1342.90
	(-0.092)		(-14.40)

metro® 경제

美 기준금리 동결
한미 금리격차
2%p 유지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K항공 빅딜' 9부 능선 넘었다

이사회 '화물사업 매각' 가결 고용유지·처우개선 등 담보 대한항공, 아시아나CB 상환 EU 집행위 통과 가능성 높아



아시아나항공이 2일 서울 모처에서 임시 이사회를 재개해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양사 합병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분리 매각이 이사회를 통해 통과되면서다. 이에 대한항공은 화물사업 매각 시 인수하는 측이 직원 고용 유지와 처우 개선을 담보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내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안을 의결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 없이는 독자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사내이사인 원유석 대표와

배진철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4명의 사외이사가 참석했다.

사내이사였던 진광호 안전·보안실장(전무)은 지난 30일 이사회 직전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데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이사회는 참석 이사 5명 가운데 찬성 3명, 반대 1명으

로 해당 안건이 가결처리됐다. 이사 1명은 논의도중 퇴장하면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EU 집행위의 심사 통과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기업결합의 '9부 능선'을 넘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대규모 자금 지원과 화물사업 고용 연계·유지 등을 약속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3000억원 규모의 신규 영구전환사채(CB)를 취득키로 했다. 이는 대한항공이 마련한 아시아나항공 재무지원 방안 중 하나다. 양사가 체결한 자금 지원 합의에 따라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이 취득한 기존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CB는 전액 상환한다. 금리도 기존 7.2%에서 4.2%로 하향했다.

또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이후 EC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때까지 7000억원 규모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운영자금 용도로만 사용키로 제한했다. 인수계약금 3000억 원 중 1500억원도 이행보증금으로 전환한다. 기업결합 여부와 관계 없이 변제가 필요 없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休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대상 ▲조경혁신상 ▲에코단지상 ▲스마트환경상 ▲테마조경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인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3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소개된 30여곳 입주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심사방식 : 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 ◆ 수상 명 : 대상 조경혁신상 에코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등
- ◆ 수상작 선정 : 11월 28일



尹대통령, 독점적 행위 지적에 카카오택시, 수수료 개편 착수

尹 "카카오택시 횡포 부도덕" 카카오모빌리티, 의견 수렴 택시기사 긴급 간담회 추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의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행위를 질책한 직후에 내놓은 것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일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른 시일 안에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외부 의견을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사업 모델 혁신을 위한 고민

을 거듭해 왔다"면서 "업계를 비롯한 국민 목소리와 질책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 승객, 정부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가맹택시 수수료는 운행 매출의 20%다. 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가맹택시 업계 경쟁사인 우티(2.5%)와 비교하면 0.5~2.5% 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독과점 행위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에 가입한 택시가 우티·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쿨을 끊는 등 '쿨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m-커버스토리

정부 재정 비상... 긴축 통해 약자복지 집중 투자

2024 예산안

소비자물가 3.8% 상승 중앙정부 채무 1100조 60조 대규모 세수 결손 재정 효율적 운용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시민들을 만나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을 꿰뚫는 말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에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는 '알뜰재정·살뜰민생'이다. <관련기사 4면> 올해도 경기가 침체된 것은 지표를 통해 나타난다. 국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1.4%로 전망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 국회 예산정책처도 1.1%를 예상하는 등 모두 1% 초반대 경제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 역시 심상찮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를 기록한 뒤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 7월에는 2.3%까지 낮아졌지만, 8월(3.4%)과 9월(3.7%) 계속 상승하면서 석 달 연속 상승 폭을 키웠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 1000억원 증가한 110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1033조 4000억원)과 비교해선 76조 5000억원 순증했으며, 정부가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함께 제시

한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 7000억원)보다 8조 3000억원 더 많은 규모다.

아울러 올해 약 6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내년에도 경기둔화·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2023년 예산 대비 33조 1000억원 감소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총지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8조 2000억원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은 전년과 비교해 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기반한 것이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제박람회기구' 본부 파리 방문... 부산박람회 유치 총력전
▲ 안철수, 혁신위에 "건강한 당정관계 확립 언급 없어" 비판 /사진 뉴시스

▲ 이재명, 여 '메가서울' 추진에 "국정장난 아니냐... 신중한 접근"
▲ 통일부 "북, 긴급 상황 조치 가능토록 연락채널 정상화 촉구"



▲ 경제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노란 봉투법 멈춰달라" /사진 뉴시스
▲ '김포 등 중소도시 서울 편입' 반대 58.6%... 찬성 31.5%